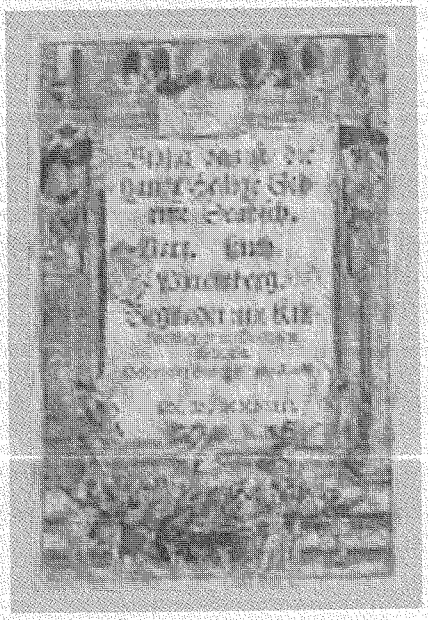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루터의 적수로 널리 알려진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불분명하고 난해하다고 생각했다. 루터는 이런 생각을 지닌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이 끝나자 성경의 명료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즉 "성경은 그 자체로서 탁월한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관적이다"라고 밝혔다.(LW 3, 247; WA 43, 51)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Wittenberg Stadkirche)에 모여든 예배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얼굴에 직접적으로 비침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훈계와 양육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사람이 의도적으로 밝은 태양을 향해 눈을 가리거나 문이나 창으로 태양을 가리고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LW 24, 92) 루터의 이 주장은 자신의 개념에 의해 중독되어 혼란스러운 에라스무스(Erasmus)와 같은 자들을 향해 주어진 것이었다. 즉 사람 편에서의 어두움은 "성경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므로 어린 아이라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루터는 설명하였다.(LW, 16, 242; WA 31², 175; 이사야 29:10 주석)



이렇게 성경의 내재적 명료성(*claritas*)에 근거하여 성경의 해석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복잡한 해석학적 과제가 아니라 단순한 설명(*enarratio*) 또는 전개해 보여 주는 것(unfolding)이라고 보았다. 그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주어진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이라고 보았다.(LW 24, 228)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성과 그 인격에 있어서 삼위성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루터의 적수로 널리 알려진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불분명하고 난해하다고 생각했다. 루터는 이런 생각을 지닌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이 끝나자 성경의 명료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즉 "성경은 그 자체로서 탁월한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관적이다"라고 밝혔다.(LW 3, 247; WA 43, 51) 그는 사도들의 성경관을 예로 들어 에라스무스에게 성경의 명료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사도들이 그들이 설교하는 바가 성경에 의해 증명된다고 말할 때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그들이 스스로가 지닌 어두움을 성경이 지닌 더 큰 어두움 아래 숨기려 하는 것인가?" 루터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진실 여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로서 성경에 호소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주장들이 불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만약 성경이 불분명하고 반복적이라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인가? 확실히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애매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 완전한 명료성과 성경의 평이함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단지 어두움만 남겨줄 따름이다. …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그 중 일부가 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을 허락하지 않는다."(WA 18, 654-56)

루터의 노예의지론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박하는 책으로 평가되는 루터의 〈노예의지론(*De servo arbitrio*)〉은 루터의 신학을 개괄함에 있어서 적합한 책으로 알려져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루터는 사실상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성경의 명료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Friederich Beisser, *Claritas Scripturae bei Martin Luther*)고 평가된다. 에라무스는 성경 자체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므로 성경에서 명료성을 찾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유 의지에 근거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루터에게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며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에 대항하여 성경의 명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루터의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그의 신론에서 비롯된 이중적 진실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하나님이 비록 숨겨진 하나님 (*deus absconditus*)이시지만 스스로가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구원적 의지와 능력을 분명하게 계시하기로 작정하셨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첨예화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명료성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루터가 내세우는 성경의 명료성의 핵심적 사항이 복음의 명료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Beisser, *Claritas Scripturae bei Martin Luther*, 75ff)

우화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그의 창세기 주석에는 루터가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내재적 명료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잘 드러나 있다. 루터는 자신이 훈련받았던 성경에 대한 우화적 해석법을 버렸다. 그는 모세가 신비적이며 우화적인 언어로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스토리를 묘사하였다는 사고를 거부하였다. 루터는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화적 피조물과 우화적 세계에 대하여 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 피조물과 우리의 감각에 의해 파악 가능한 가시적 세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모세는 '창을 창으로' 부르고 있으며 낮과 밤을 우화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 같이 사용하였다고 그의 창세기 1장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LW 1, 5; WA 42, 4)

루터는 또한 상징적 언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성경이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익숙해 있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반석' (고전 10:4)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베드로가 '홍수' (벧전 3:21-22)를 세례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였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루터는 모든 것을 우화로 바꾸어 버리는 성경 해석과 성경의 핵심이 해석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해석을 모두 거부하였다.(LW 2, 150f; WA, 42, 369f) 성경을 자신의 성급한 생각을 지지하는 도약대로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루터는 그들이 지닌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언급하는 간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경멸과 더불어 우화적 해석을 선호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LW 2, 164; WA, 42, 377) 그는 우화에 대하여 "역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우화는 파괴적인 것이지만, 특히 역사의 위치를 점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하였다.(LW 5,345; WA 43, 667)

루터의 이사야 주석, 특히 1장에서 39장까지에 대한 주석은 성경의 주해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우화적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주해자인 루터는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의 우화를 사용하였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사실을 묘사하려면 우화적 표현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이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묘사된 '죽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요셉의 귀환'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가장 분명한 그림을 평행법적 차원에서 발견하기도 하였다.(LW 8, 54; WA 44, 618) 그러나 여기에 드러난 루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화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본문 자체를 퇴색시키거나 해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평이한 문법적 감각과 의미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를 통하여 본문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본문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LW 16, 136; WA 312, 97)

루터에게 창세기 주석은 자신의 해석학적 방법을 분명하게 확립시킬 수 있었던 장(arena)이었다. 그는 성경의 명료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성경 단락이 반드시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중세 교회가 내세웠던 4가지 해석법에 근거한 4가지 의미(문자적, 비유적, 영적, 우화적)를 위험하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루터는 성경이 우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절을 해석하는 기본적 원칙은 단지 그 '역사적 의미'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역사적 의미는 참되고 건강한 교리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LW 1, 232; WA 42, 173)

루터의 성경해석 원리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루터는 항상 기본적 전제 조건하에 이를 수행하였다. 이 전제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J. Koestlin, *Theology of Luther*, II, 268) 첫째, 종교적 진리가 성경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립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둘째, 성경은 가장 밝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전한 그 자체의 빛 아래 서 있으므로 더 이상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 인간 편에서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는 자연에 주어진 일반 계시가 참된 것이지만 성경에 주어진 계시의 진리에 비하면 약하고 희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루터는 성경의 명료성과 의사소통의 상식적 법칙, 문법의 올바른 사용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와 일치하는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한 성경의 자체적 열쇠라고 밝힌다. 기독론적 집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합리적인 모든 크리스천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와 상이한 의미나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WA 36, 491)

그는 성경 본문의 의미가 지닌 진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것이 성경 해석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LW 4, 154; WA 43, 237) 이는 임의적으로 어리석은 의미들이 소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LW 4, 351; WA 43, 389) 루터는 이 언어들을 자신이 대학의 강단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후에 배우게 된 사람으로서, 이 언어들을 마스터 하는 것의 중요성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단지 번역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더욱 조심스럽고 정확한 주해 작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은 단어들의 의미를 분산시키고 애매모호함과 혼돈을 초래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LW 6, 53; WA 44, 39) 그러나 그는 이렇게 히브리와 헬라어를 익히고 마스터하는 일이 신학교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LW 45, 363f) 루터는 또한 모국어를 사용하여 이런 언어에 대한 강조점이 표현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다. 따라서 성경 원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이 원어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관용적인 독일어, 또는 일반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성경이 지닌 의미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그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난해하지 않게 즉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었다. 따라서 루터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랍비들처럼 방황자가 되거나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지 말고 단순한 이해를 추구하고 악마적 궤변을 피하라고 경고하였다.(LW 8, 209; WA 44, 731f) 이런 단순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고 전후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루터에게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본문을 엄청난 경멸로서 대하는 것'이었다.(WA 18, 713) 루터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라는 책에서 천주교의 성경해석에 드러난 교황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천사나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폭력이 가해져서는 아니 된다. 말씀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단순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문맥이 구체적으로 이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문법적 용례와 적합한 의미와 상관없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의 적에게

모든 성경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LW 36, 30; WA 6, 497f)

성경해석의 구심점

만약 루터에게 "성경 주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답했을 것이다: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구유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LW 2, 45, WA 42, 293) 이는 성경 주해의 구심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루터가 주장하고 기록하였던 모든 것을 지배하였던 강조점에 해당된다. 루터는 만약 성령이 성경을 통해 내세우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그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고귀한 단락들이 읽혀질 수 있으나 이해되지 않은 채 밤낮으로 소리만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경을 단순한 문자주의나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불신적 태도로 해석하려는 자들에 대항하여 성령은 성경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루터는 주장했다.(LW 48, 25) 성령은 올바른 해석자이므로 우리는 그의 부지런한 학생이 되어야 마땅하며 그로부터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야 한다고 강조했다.(WA 21, 230) 또한 성령은 성경의 문을 여는 문지기이시며 성경에 대한 가장 훌륭한 안내자이신데 이는 그가 성경을 기록한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부드럽고 강하며 확실한 안내자로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신앙의 항목은 명료성과 더불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 된 자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바를 놓칠 수 없다. 이 신앙의 항목은 마치 금반지와 같은데 이는 불분명하고, 개별적인 단락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신앙의 유추(analogy of faith)에 이르게 만든다. 이런 단락들이 성경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루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루터를 방해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루터는 잘 알려지고 쉽고 명료한 본문에서 출발하여 잘 알려지지 아니하고 난해한 본문으로 나아간다는 원칙, 이를 통하여 성경의 명료성이 보장되는 원칙을 늘 내세웠다. 루터는 신앙의 유추와 성경의 유추(analogy of Scripture)라는 이중적 차원을 견지하였으므로, 성경의 모든 해석은 이 두 가지 유추에 의하여 검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추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인데 이는 이들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중심적 주제에 의하여 합일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루터는 신앙의 유추를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 신앙,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포함하도록 만들었다.(LW 2, 164; WA 42, 377)

성경의 명료성과 신앙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성경의 의미를 열어 주시는 분이시다. 마음속의 믿음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루터는 신앙을 항상 말씀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말씀의 적합성과 유효성은 인간의 믿음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말씀은 신앙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며 항상 교회보다 선행한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구원하는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지만, 신앙은 그 자체로서 성경의 명료성을 결정짓는 요소나 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의 신실한 제자들의 손에 위탁하셨고 이들은 그 말씀을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를 불신자들에게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바이서는 믿음과 성경의 명료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경의 외적 명료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답하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루터는 이를 제외할 것이다. 믿음이 말씀의 명료성에 근거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며 정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Beisser, *Claritas Scripturae bei Martin Luther*, 89) 따라서 만약 이단이나 심지어 위선자가 어떤 본문을 자신의 소용을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성경의 명료성이 지닌 현실성과 그 의미

를 박탈하지 못한다. 사실상, 성경의 명료성과 이에서 비롯되는 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그 빛을 가장 강하게 발휘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지 크리스천의 믿음에 달렸다고 주장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믿었다.

율법과 복음

루터는 자주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자체로서 인간과 그의 죄를 향해 위협하는 율법과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 은혜로 이루어진 약속으로 나누어진다고 루터는 믿었다. 루터에게 신약은 구약의 해설서이었다. 구약의 주제가 신약의 지식에 관한 것 밖에 없으므로 "구약의 전 부분(whole portion)이 명료하다."고 루터는 주장했다.(LW 3, 73; WA 42, 600) 창 15:6과 이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주석에 있어서 루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12장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해석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LW 3, 18; WA 42, 561) 그는 로마서가 지닌 교리적 풍부함에 주목하면서 로마서가 성경의 문이며 열쇠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LW 7, 280; WA 44, 507) 이는 그가 성경 이해의 지평을 로마서에만 국한시켰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 가져다 주는 오류의 엄중함, 특히 신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잘못된 구약 해석을 가져오는 경우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문법에 대하여 실수하는 것과 그 주제에 관하여 실수하는 것은 그 경중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그 주제를 잘못 파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이는 특히 성경의 명료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루터는 판단하였다.

성경의 명료성과 성경의 검증

코이만은 "성경은 스스로의 해석자일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를 자신의 기준에 의하여 검증하는 스스로의 비판자이다."라고 루터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W. Kooiman, *Luther and the Bible*, 225) 루터는 성경을 문자들의 집합체로 국한하여 이에 얽매이는 문자주의적 해석가는 아니었다. 또한 그는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찾아다니는 방황자도 아니었다. 그는 성경의 외적 형식에 얽매이는 부자유함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자이었다. 루터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심을 지닌 사람이었고 이와 동시에 성경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절대적 기준을 지닌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성경의 명료성은 사실상 성경의 해석자에게 자유로 인식됨과 동시에 이 명료성은 성경의 기준에 대한 준수를 명령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경의 메시지가 지닌 명료성은 그 자체로서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그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어떤 무질서를 방관하지는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이성은 명료성에서 비롯된 자유를 방임으로 오해하기 쉽다. 만약 인간의 이성이 신앙의 항목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침묵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성경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또한 의미도 없고 단지 신비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루터는 "모든 이단들은 자신의 이해를 편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WA 18, 749)고 주장했던 것이다.

• 약어설명 : LW = Luther's Works
WA = Weimar Ausgabe (Luthers Werke)